



Vol.30

Forced Mobilization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식지

FOMO

2023
장반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FOMO



- | | |
|--------------------------------|--|
| 03 '기억의 터' 사이버 추모관 | 34 청년 도슨트 운영 |
| 04 2023년 상반기 위패 안치식 | 35 도슨트 인스타그램이 개설되었습니다 |
| 06 역사는 현재 진행형, 조세이(長生)탄광 수물 사고 | 36 청년 도슨트 소감 및 포부 |
| 12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AI 웹툰 그리기 | 38 특별순회전시 《잊힌 그날의 기억》 |
| 15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카카오톡 채널 개설 | 40 역사관, 학교로 찾아가다 |
| 16 현충일은 포모와 함께 | 41 학교, 역사관으로 찾아오다 |
| 18 상반기 역사관 교육프로그램 인문학 특강 | 42 어린이의,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특별전 '또 다른 수탈收奪' |
| 20 역사는 길 위에 있다 | 44 2023년 기증 유물 소개 피해자 박기열朴奇烈의 사진 |
| 26 동작고등학교 역사관 방문기 | 46 기증은 인연이다 |
| 28 역사관을 방문한 신정초등학교, 내호중학교 | 47 독자참여 낱말 퀴즈 |
| 29 대구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의 역사관 방문 소감 | |
| 30 대구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의 PICK | |

일러두기 FOMO는 일제의 강제동원을 뜻하는 Forced Mobilization의 약칭입니다. 일제강제동원이란,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침략전쟁을 벌이기 위해 자행한 인적·물적 동원 및 자금통제를 말합니다. 강제동원은 잊어서도, 잊어버려서도 안 될 인권유린의 뼈아픈 역사입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매거진

발행일 2023년 6월 25일 통권 제30호 | **발행인** 삼규선 | **편집인** 박철규

편집위원 강창석, 김기수, 김성곤, 배연우, 신소명, 정복엽, 진흥국 | **기획·편집** 반선영, 김정원

디자인 효민디앤피 | **홈페이지** <http://www.fomo.or.kr/museum>



‘기억의 터’ 사이버 추모관

‘기억의 터’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5층에 위치한 위패관으로, 유골 한 점 돌아오지 못한 일제강제동원 희생자들의 넋과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추모 공간입니다. 저희 재단은 언제나 위패를 검색해 보실 수 있도록 ‘사이버 추모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기억의 터 VR 보기’를 누르면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넋이 담긴 위패관을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성명, 출생 연도, 동원지를 입력하시면 위패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의 터 Q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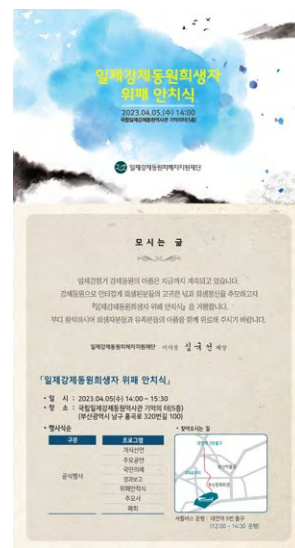
위패를 부착 중인 유가족

2023년 상반기 위패 안치식

일제강제동원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진행되는 위패 안치식을 올해는 4월 5일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기억의 터’에서 개최하였다.

역사관 ‘기억의 터’는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의 영면을 위한 추모공간으로, 2020년 6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이다. 유해를 찾지 못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데, 이번 위패 안치식에는 국외 희생자 위패 51위를 봉안하였다. 이로써 현재 ‘기억의 터’에는 1,560위의 위패를 봉안하게 되었다. 200여 명의 유족이 참석한 이번 위패 안치식에는 살풀이 추모공연, 위패 안치식을 차례로 진행하였고, 일본 오키나와에 군무원으로 동원되었던 故곽용수님의 아들 곽갑윤님,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이준승 단장,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심규선 이사장이 추모사를 낭독하였다.

재단은 앞으로 일제강제동원 희생자를 추념하는 행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명실공히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도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꽃이 필니다.
 꽃이 집니다.
 대지를 적시는 비가 내리고
 다시 꽃이 필니다.
 이런 계절이면
 유난히 당신이 더 그리워집니다.

가로 7센티, 세로 18센티, 두께 2센티
 이 작은 돌 안에 어찌 당신의
 짧지만 강렬했던 청춘과
 못다 이룬 젊은 꿈과
 가족에 대한 애절한 사랑과
 조국을 향한 사무치는 한을
 모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구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당신의 푸르디푸른 목숨을
 어찌 이 작은 돌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위패 안치식에서 추도사 중인 심규선 재단 이사장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여기에 모여
 당신의 하얀 이름을 검은 돌에 새깁니다.
 머리칼 하나, 손톱 한 개, 옷가지 한 조각 돌아오지 못하고,
 오로지 이름만이 돌아온
 당신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육신은 우리 곁에 없으나
 당신이 이 세상에 분명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림고, 또 그리운 당신의 이름을
 오늘 이곳 '기억의 터'에 남깁니다.

부디 영면하소서.

-2023년 위패안치식 재단 이사장 추모사 중



역사는 현재 진행형, 조세이탄광^(長生) 수몰 사고

글. 박예분 아동문학가

조세이(長生)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위패 135위 봉안

- 창씨개명 아닌 한글 이름으로

2023년 4월 5일, 이른 아침 고속버스를 타고 전주에서 부산까지 빗길을 달렸다. 모처럼 내리는 봄비라 불평할 수도 없었다. 그칠 줄 모르고 비는 급기야 바람을 안고 춤을 추는가 싶더니 곧 휘모리장단으로 몰아쳤다. 낮선 길에서 어디론가 날아갈 것만 같았다. 두 손으로 구부러진 우산의 손을 부여잡았다. 빗발이 종아리를 때렸다. 신발이 젖었다. 옷도 젖었다. 쏟아지는 빗길을 헤쳐 나가는 발걸음이 무겁고 불편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다. 누군가에게 붙잡혀 강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제발로 찾아가는 길이고,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분명하고, 행사는 언제 끝나고, 몇 시쯤 다

‘기억의 터’ 안치된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들의 위패와 박예분 아동문학가



시 편안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고, 무엇보다 그동안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고, 그렇게 내심 기다려 왔던 날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날,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기억의 터’에서 일제강제동원 희생자분들의 위패 안치식을 거행하였다.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 여러 지역을 침략하기 위해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였고, 이듬해 모집 형태를 취해 조선의 청장년층을 일본으로 강제 연행하여 노동 착취 및 인권을 유린하였다.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은 이역만리 타국에서 노무자, 군인·군속, 군위안부 등으로 배치되어 혹독한 노역에 시달리며 안타깝게 희생되었다. 이번 위패 안치식은 그분들의 고귀한 넋과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자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에서 마련한 자리이다.

당일 그토록 비가 내린 것은, 끝내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유골조차 찾을 수 없는 희생자들의 한을 달래기 위해 어찌면 하늘과 땅이 함께 통곡하며 울부짖는 게 아닐까 싶었다.

‘기억의 터’에 도착하여, 조세이탄광 희생자들의 위패가 봉안된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감회가 깊었다. 검은 바탕의 돌에 우리의 얼이 담긴 ‘한글’로 희생자들의 이름을 또렷하게 새긴 위패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다. 그토록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던 희생자들의 흔적이 드디어 고향과 가족의 품에 안긴 것처럼 평온해 보였다.

조세이탄광 희생자들의 위패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자니 오래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가라앉는 것 같았다. 일본의 사찰 서광사(西光寺)에서 보관하고 있는 조세이탄광 희생자들의 위패는 탄광회사에서 일본식으로 성을 바꾸어 버렸다. 탄광 측 경영주가 수몰 사고 당시 서광사에서 제사를 지내고 유가족들의 입을 막는 용도로 급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필자는 현지 추모제에 참석할 때마다 마음이 아렸다. 나무 위패에 새겨진 희생자들의 이름을 어떻게든 한글로 바꾸고 싶었다. 이번에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필자의 마음이 이러할진 데, 잃어버린 희생자의 한글 이름을 기억의 터에서 되찾은 유족들은 더할 나위 없이 흡족했을 것이다.

일본 서광사에 있는 위패. 희생자 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생존자들에게 듣다

- 조세이(長生)탄광 수몰 사고, 재해가 아닌 인재

조세이(長生)탄광은 일본 야마구치(山口)현 우베(宇部)시 니시키와(西岐波)에 위치한 해저탄광으로 1942년 2월 3일 오전 9~10시쯤 수몰되어 조선인 136명이 희생되었다. 올해 수몰 사고 81주기를 맞았으나 아직도 희생자들의 유골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의 나라 차디찬 바다 밑에 수장되어 있다. 유족들은 유골 발굴을 간절히 원했지만, 일본 정부는 그동안 바늘귀만큼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제 생존자는 물론 유족 1세대마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다행히 필자는 2006년 5월 당시에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 생존자 김경봉 옹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10여 평 아파트에 살고 있던 김경봉 옹은 허리에 척추 보호대를 하고 있었다. 초여름인데도 방에 보일러를 틀어 놓아서 등줄기에 땀이 날 정도였다. 그만큼 건강이 좋지 않았다. 강제징용 되고 일본에서 당한 폭행으로 후유증이 심하다고 했다. 당시의 악몽을 벗어나지 못

해 우울증, 두통, 불면증에 시달리며, 그들에게 당한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빈 노트만 보면 당시 상황을 기록했다고 한다. 생존자 김경봉 옹이 마른침을 삼키며 조세이탄광 이야기를 꺼냈다.

“탄광에 도착해 보니, 고향 동네에서 형뻘 되는 사람 두 명이 먼저 끌려와 있었어요. 숙소는 판잣집과 천막집이었고, 주위는 온통 바다였지요. 숙소 주위에는 4~5미터 높이의 초소가 군데군데 있었고, 마룻바닥으로 된 숙소는 방 하나에 30명 정도가 배치되었어요. 우리는 일본에서 특별히 잘못된 일도 없는데 특하면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쳐지고 많이 당했어요. 그곳은 완전 생지옥이었지요. 탄광 내부는 공기가 나빠서 콜레라가 돌아서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 나갔어요.”

필자는 김경봉 옹으로부터 조세이탄광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을 확인하고 싶을 만큼 믿을 수 없었다. 산속에 있는 탄광도 아니고, 해저 탄광이라니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이듬해 현지를 찾아가서야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07년 2월, 유족들을 비롯하여 생존자와 함께 일본 현지 추모제에 참석하여 수몰 사고에 대한 진상을 파악했다.

2007년 2월에 찾아가한 조세이탄광 현지는 너무도 조용하고 평화로운 바다였다. 바다 위에 불쑥 솟아 있는 두 개의 원형 콘크리트 구조물 ‘피아’(Pier)가 역사적 유물로 남아있다. 피아는 해저에 있던 조세이(長生)탄광의 환기구였으며 광부들의 숨구멍이었다. 현재 일본은 근처 주민들의 어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잘못된 역사의 증거인 ‘피아’를 제거하려 하고 있다.

두 생존자가 피아를 바라보고 섰다. 1939년 10월



1933년 8월, 조세이(長生)탄광



2007년 일본 현지에서 생존자 증언 :
설도술 웅(모자 착용), 김경봉 웅

말에 조세이탄광으로 강제 징용되었던 생존자 설도술 웅이 먼저 당시의 참상을 증언했다.

“탄광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1차 모집에 왔어. 탄광에 처음 와서 4일 동안 일본 사람들에게 일하는 법을 배웠고, 5일째부터는 2인 1조가 되어서 일했지. 한 사람은 탄을 켜고, 나는 탄을 끌어서 궤짝에 퍼담아 날랐어. 수몰 사고 당일 새벽 4시까지 일을 하고, 숙소로 돌아와 씻고 밥을 먹고, 막 자려고 할 때 물 비상이 났지. 갯 안에서 일할 때, 거기 일본 감독들이 원망스러워. 왜냐면, 그 물이 넘칠 때도 일주일 전부터 두 사람이 밤낮으로 물이 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거든. 물이 더 내려올 때도 있었고, 덜 내려올 때도 있었으니 위험하니까 일하러 들어가지 말라고 해야 하는데, 일을 더욱 세게 시켰어.

내가 근무 마치고 나왔을 때라도 감독관들이 상황 판단을 제대로 했으면, 그런 참사는 막았을 텐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일본 사람들은 사고 나기 3개월 전부터 탄광에 바닷물이 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드만. 그런데 우리 조선인에게는 한마디도 안 했지. 마치 물이 터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처럼 말이야. 몇 시간이라도 일찍 피신시켰더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 거야.”

생존자 설도술 웅은 희생자들이 수장 되어 있는 바다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이야기를 다시 이어갔다.

“저 밑에서 얼마나 춥겠어요. 나는 어제 이곳에 와서 어찌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혼났어요.”

설도술 웅 옆에서 말없이 가슴을 치던 생존자 김경봉 웅이 말문을 열었다. 김경봉 웅은 1941년 7월 (당시 18세) 어느 날, 갑자기 마당에 들이닥친 일본 경찰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조세이탄광으로 강제 징용 되었다.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비로소 가족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

“여기서 두 번 탈출을 시도했는데 다시 잡혀 들어왔어. 잡히면 대부분 곡괭이로 맞아 죽었지. 친구들이랑 셋이서 탈출을 했는데, 저녁 내내 가도 가도 모래밭밖에 없었어. 육지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서 결국 목숨을 내놓은 탈출에 실패했지. 맞아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야. 둘은 맞아 죽었고, 나는 그나마 맷집이 있어서 겨우 목숨만 건졌지.”

그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수몰 사고 당시를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오후 5시부터 16시간 채탄 작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탄광 입구에서 ‘물비상이 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바다 위로 검은 연

기가 자욱했고, 하얀 물기둥이 여기저기서 솟구치며 물거품이 일었지요. 탄광 측은 일본 헌병을 앞세워 육로로 연결된 갱구를 틀어막아 버렸고, 갱 안에 있던 동료들은 모두 죽었지요. 저 혼자 살아 남은 것이 너무 마음 아픕니다. 하루 속히 유골을 발굴하여 고국으로 편안히 모셔야 하는데…….”

김경봉 옹은 울분을 참지 못해 발개진 얼굴로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는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재해가 아닌 인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세이탄광은 노동환경이 열악하기로 악명이 높았기에 일본인들도 작업을 기피했다. 1939년부터 3년간 우베에는 조선인 1,258명이 강제동원되었다고 한다. 생산량이 저조한 조세이탄광은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 투입되면서부터 우베 지역 59개의 탄광 중에 석탄 생산량이 3위에 올랐다. 그만큼 조선인들의 삶은 고되었다. 하루 2교대, 콩보리밥에 단 무지로 끼니를 때우며 석탄을 캐다.

제2의 군함도라 불리는 조세이탄광은 육지에서부터 바다 밑으로 10여km까지 갱도가 뚫려 있던 일본 최대의 해저 탄광이었다. 해저 면이 얕아서 콜

레라가 만연했고, 늘 누수에 노출되어 사고의 위험이 도사렸다.

탄광회사는 탄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 채굴 제한구역까지 들어가서 갱도를 지지하는 버팀목인 갱목을 제거하며 탄을 캐다. 당시 일본은 국책산업으로 석탄 생산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일한 에너지원인 석탄으로 전쟁 물자를 생산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결국 열악했던 조세이탄광은 수몰되고 말았다.

갱도에 물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을 때 광부들을 미리 피신시켰거나, 수몰 당시 탄광 입구를 서둘러 막지만 않았어도 일부는 살아나왔을지도 모른다. 일본은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을 생지옥으로 몰아넣었다. 조선인들을 조세이탄광에 가두고 노예처럼 부린 것도 모자라서, 수몰된 갱 안에 생매장을 시킨 것이나 다름 바 없다. 수몰 사고 후, 탄광 측은 사고의 재발 위험이 높다는 이유를 내세워 시신을 발굴하지도 않고 탄광을 폐쇄해 버렸다. 김경봉 옹은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나는 숙소로 돌아와서 사흘 후, 평소 마음이 맞았던 두 친구와 함께 다시 2차 탈출을 시도했어요. 무사히 정문에서 탈출한 후, 탄광 근처에서 멀리 달아나기 위해 산으로 산으로만 걸었지요. 낮에는 숲 속에 파묻혀 지내고, 밤이 되면 무작정 걷고 또 걸었어요. 우리 일행은 3일 동안 거의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지요. 그래서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기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큰 길로 나와야 했어요. 멀리 초가집 한 채가 보여서 그 집으로 들어가 보니, 조선인 아주머니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머니에게 물과 밥을 좀 달라 부탁하였더니, 우리처럼 탄광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일본 경찰에 넘겨주면, 한 사람당 쌀 한 가마니와 운동화 한 켤레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수몰 사고 전 탄광의 모습

그 집 남편도 탄광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잡아서, 경찰에 넘겨주려고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른 밥을 먹고 빨리 도망쳐라’며 뒷문으로 안 내를 해 준 아주머니가 참으로 고마웠어요. 40세 정도 되었던 그 아주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생명의 은인이었던 고마운 아주머니를 한 번 만이라도 만나 뵙고, 꼭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그렇게 도망치다가 모르는 남자를 만났는데, 일자리를 줄 테니 따라오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배를 타고 갔지요. 그곳은 야하타 제철소였고, 두 달 넘게 일을 했으나 샅은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생존자 김경봉 옹처럼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은 해방이 될 때까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고, 목숨을 제대로 건사하기도 힘들었다. 당시 일본에 사는 조선인 남자는 21세가 되면 군대에 가야 했다. 김경봉 옹은 일본 군대에 들어가 훈련받으며, 큰 잘못도 없는데 군화발에 차이고 비인간적인 구타를 당하는 등 조선인으로서 받는 차별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훈련을 마치고, 3일 후엔 입영통지서를 받고 최전방으로 나가 죽을 목숨이었다. 그런데 히로시마에 원폭이 쏟아지고 일본 천황이 항복해서 조선은 자동으로 해방되었다.

필자는 당시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와 관련된 자료와 인터뷰를 모아서 아동청소년 역사논픽션 『뿔난 바다』(글 박예분, 청개구리, 2008)를 출간하였다.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한국과 일본 정부의 협력으로 하루빨리 유골을 발굴하여 고국에 안치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타국으로 강제동원되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조선인 희생자들과 유족의 한을 풀어 주고, 조세이탄광에 대한 아픔을 잊지 않고 기록을 이어가는 의미로 글을 쓰고 논픽션으로 책을 냈다.

아동청소년 역사논픽션
『뿔난 바다』
글 박예분, 청개구리,
2008



책이 출간되고 『뿔난 바다』를 읽은 대한민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깜짝 놀랐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선인들이 강제동원된 조세이탄광 이야기를 듣고, “과거 역사는 우리가 사는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미래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과거사 청산은 꼭 필요”하며(이루강, 당시 신일중 3학년), 일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역사는 지나간 것이 아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가는 현재진행형이다. 역사는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쉼 없이 흐르는 물과 같다. 후세에게 어떤 물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지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하고, 그 과정을 가감 없이 기억하고 기록하며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역사이다.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인 조세이(長生)탄광의 아픈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이다.

박예분 약력 _ yeboon@naver.com

아동문학가 / 스토리창작지원센터 대표

2004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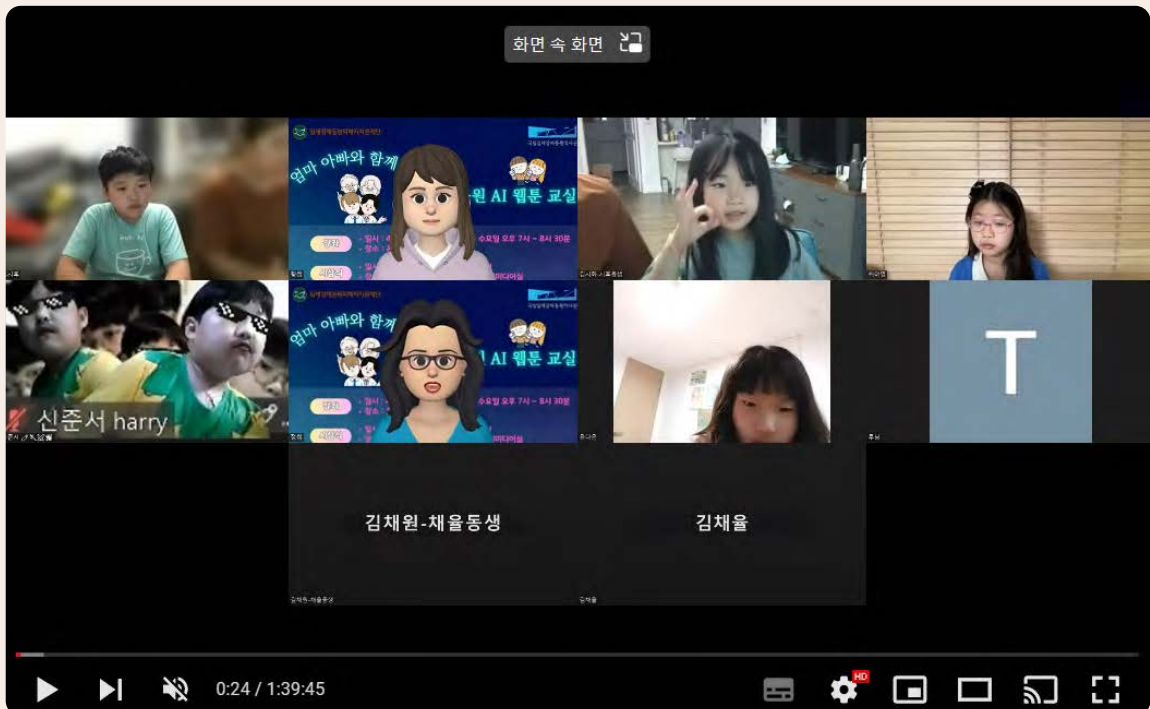
저서 : 아동청소년 역사논픽션 『뿔난 바다』

동화책 『줄타키』, 『부엉이방귀를 찾아라』, 『이야기 할머니』 동시집 『발가락들이 웃는다』, 『안녕, 햄스터』, 『엄마의 지갑에는』, 『햇덩이 달덩이 뽕 한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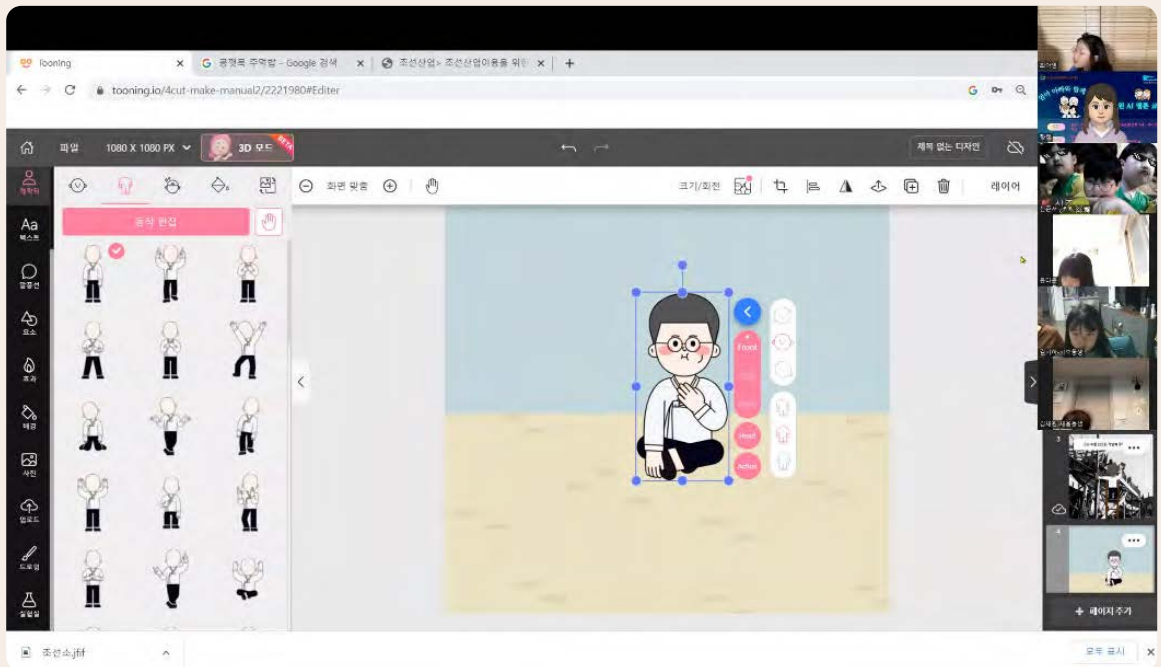
그림책 『피아골 아끼고래』, 『우리 형』, 『달이의 신랑감은 누구일까?』 외 다수



지난 4월부터 매주 수요일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AI 웹툰 교실을 운영했다.
AI 웹툰 교실은 ZOOM에서 스물 다섯 가족이 만나 AI 웹툰 제작 방법을 배우고 일
제 강제동원을 주제로 한 웹툰을 직접 그리는 체험이다. 총 8주간 진행한 이번 체험
은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부터 '지속가능한 지구'까지 다양한 주제로 진행했다.



➡ AI 웹툰 그리기에 참여한 가족들



▶ 시 웹툰을 그리는 장면



강제동원의 유형 수업에서는 다크 투어리즘과 역사 탐방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역사를 이해하고 강제동원의 유형 4가지에 대한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 신준서 학생이 제작한 카드뉴스

당시 일당을 받았지만, 식대, 숙박비, 의복비 등을
강제로 떼어가 손에 쥔 돈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나무도시락에 밥을 쫓는데, 주먹만 한 크기의
밥이 한 끼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안씨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1세이던
1944년 8월, 일본에 보내졌습니다.



일본에 끌려간지 1년쯤 되었을 때, 해방 소식을
듣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수업도 진행했다. 이 수업에서
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이
야기와 그 역사에 대해 알아보
았다.

그리고 피해자분들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였던 안봉상님의 이야
기를 웹툰으로 제작했다.

➡ 김재울 학생이 제작한 웹툰

별헤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차 있습니다.



‘별 헤는 밤’이라는 주제로 진
행된 수업에서는 윤동주 시인
의 시를 통해 일제강점기의 역
사를 살펴보고 시를 읽고 느낀
점을 웹툰으로 제작했다.

➡ 윤다은 학생이 제작한 웹툰

가슴속에 허나 들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헤는 것은
쉬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혼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씩의 추억과
별 하나씩의 사랑과
별 하나씩의 불안함과
별 하나씩의 동경과
별 하나씩의 시와
별 하나씩의 **아너니...**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카카오톡 채널 개설



- ❶ 카카오톡 실행
- ❷ 상단 검색창 클릭
- ❸ 코드 스캔 후 간편가입

매월 발행되는 뉴스레터와 문화행사 소식을 받아보세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검색





현충일은 포모와 함께

2023년 6월 6일 현충일, 역사관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문화행사에서는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역사관의 귀여운 마스코트 '포모(FoMo)'가 그려진 스티실예코백과 타투스티커 체험 행사를 진행하였다. 전쟁으로 생겨난 비극의 역사를 다루는 우리 역사관은 앞으로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역사관에 방문한 가족들, 아내에게 휴식 시간을 주기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역사관을 방문하셨다는 멋진 아버지들, 초등학생 친구들끼리 와서 행사 참여하고 어린이체험관까지 다녀갔다는 석포초등학교와 용호초등학교 친구들, 한국장학재단의 사회리더 멘토링 사업의 멘토, 멘티분들 모두 반가웠습니다.



상반기 역사관 교육프로그램

인문학 특강

4월부터 시작한 2023 상반기 인문학 특강이 5월 20일로 막을 내렸다. 특히 이번 인문학 특강은 운영일마다 비가 많이 내려, 봄이 지나가고 여름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렇듯 비가 많이 내리는데도 우리 프로그램을 찾아주신 청강생 여러분들과 특별한 주제, 탄탄한 강연을 준비해 주신 최병택, 이재갑, 이원범, 오혜진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린다.

많은 사람의 관심과 참여 속에 운영된 이번 상반기 인문학 특강에서는 다음과 같은 강연들이 진행되었다. 먼저 첫 시작인 최병택 교수의 강연 「욕망의 전시장」에서는 당시 조선의 공진회와 박람회의 운영방식과 시작, 당시 일제의 야욕 그리고 조선인들의 회의적인 시선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평소 일반인들이 다가가갈 수 없는 장소의 '다큐멘터리



1강

최병택 교수 : 욕망의 전시장



2강

이재갑 사진가 : 역사는 길 위에 있다



3강

이원범 교수 : 일본제국주의와 민중종교



4강

오혜진 교수 : 식민지 조선과 추리소설의 유행



사진'을 볼 수 있는 강연이었던 사진가 이재갑의 강의 「역사는 길 위에 있다」에서는 작가가 생각한 역사의 의미와 고찰을 '역사사진'을 통해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였다. 세 번째 강연인 「일본제국주의와 민중종교」에서는 이원범 교수가 진행했으며, 교수님께서서는 당시 일본의 정치, 사회, 외교 등이 복잡하게 얽여 탄생한 근대 일본의 천황제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인문학 특강의 마지막을 장식한 오혜진 교수의 「식민지 조선과 추리소설의 유행」 강연은 우리 국문학의 특별한 이면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우리는 추리소설 속 탐정으로 보통 '셜록홈즈' 아니면 '아르센 뒤펡', '에도가와 란포'를 떠올린다. '19세기 영국과 일본에는 추리소설이 있는 반면 조선에는 왜 추리소설이 유명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품은 적이 있지 않는가? 그런 궁금증을 오혜진 교수의 강의에서 조선의 추리소설들을 탐구하고 감상하며 해소할 수 있었다. 이렇듯 4개의 흥미로운 주제는 우리가 교과서 속에서 배우는 역사 사건들과 인물들의 다른 면모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역사관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접하기 쉽지 않거나 지나쳐 왔던 다양한 이야기를 강연을 통해 전해드리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위에 있다

역사는 길

· 이재갑 사진가



사진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나는, 작업 이전에 늘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한다. 어느 누구보다 이 작업을 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명분이 나에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극히 개인적 이유로 시작된 일제강점기 관련 작업은 여러 가지 이유와 명분들로 2023년 5월 현재까지 27년 3개월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96년 2월부터 시작된 이 작업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시리즈 및 구술 형태와 자료 수집 등 일본 관련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건 현장에서부터 인물까지 본 작업을 이어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한마디 때문이다.

‘거짓말도 100년 동안 하면 진실이 된다.’

무서운 말이다. 깊이 생각해 볼 말이다. 이 말의 의미는 기록하는 것을 넘어 기억을 통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진 촬영은 기록을 전제로 작업한다. 하지만 나는 기록을 넘어서서 ‘기억’을 어떻게 ‘재생’하고 ‘재현’하는가를 전제로 한다.

사진. 사진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잘한다. 정확히 말하면 사진 자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사용하는 이들이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사진’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단순히 촬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진은 이후에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사진역할론’은 촬영만큼이나 중요해진다. ‘사진역할론’이란, 촬영된 사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인데, 이것도 촬영 전 충분한 논

의의 시간을 가지고 미리 준비한 후 관련된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처음 원고 의뢰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왜냐하면 나는 글을 전문으로 쓰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진을 통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작업에 임했다. 지금도 여전히 처음 마음 그대로 작업하고 있다. 늘 현장에 있으면서 사진 이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또한 고민한 결과 중 하나가 사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긴 시간 동안 현실과 이상에 대한 고민이 나를 힘들게 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그렇다. 촬영하는 것만큼 촬영 이후 작업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누구나 사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촬영도 손쉬워졌다. 무수한 사진이 우리 일상에 스며들 듯 사용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사진 이미지만으로는 명확한 의사 전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카메라를 활용한 이미지만큼 촬영자의 인식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거짓말도 100년 동안 하면 진실이 된다>는 그들의 일관된 말과 행동에 필요한 대안과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이유다.

선택, 할 수 있어야 결정할 수 있다

이제 사진은 모든 매체는 물론,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 등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

금부터는 사진(이미지)을 활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에 사용될 때 이를 보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단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택의 기준은 물론이고 결과 또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선택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지금의 대한민국이 건재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애국지사과 이름 없이 스러져 간 민중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건 사고 현장들은 늘 내게 말을 걸어왔다. 물론 알아들을 수 없는 무형의 언어지만 깊이 있게 듣기 위해 노력했다. 실제 피해를 당한 증언자 혹은 유족을 통해 최대한 사건에 대한 사실과 진실을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것이 내가 사진 작업을 이어가는 제일 큰 이유이지만, 이 외에도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방법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변에 흩어져 있는 일제 관련 시설 및 근대 건축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근대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있는 전국의 수많은 문화유산을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일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행동과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다. 물론 쉽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는 결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역사의 큰 가르침에 대해 잊거나 소홀한 순간 다시 현시점에서 반복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역사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를 잊은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지금 이 순

간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사진은 촬영되는 순간 현재에서 과거로 변이되지만, 항상 현재진행형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과거 10년 혹은 30년 전 시작된 일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가면 되는 것이다. 사진으로 이와 관련된 일들을 끊임없이 알리고 기억하고 행동하는 이유는 현재성을 가지기 위해서다. 이것이 내가 사진 작업을 30년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이다.

둘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도 세심하게 신경 쓰고 접근해야 한다. 어떤 사건 현장이든 오랜 시간이 흘러도 늘 현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피사체(대상)들이 존재한다. 피사체(대상)들은 사람처럼 언어로 표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사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시각적 표현은 가능하다. 물론 대상 즉 피사체 역시 인간계의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계를 넘어 바라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는 항상 문제도 있고, 답도 있다. 이는 오랜 시간 현장에서 작업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바이다.

셋째, 현재 자신이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 중 어느 시점에서 해결점을 찾을 것인지 노력하는 것이다. 관찰자로서 그리고 기록자로서 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생존자 및 현장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찾아 기록하고, 기억할 수 있게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 우연히 시작된 일이고, 개인적 관심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자신의 또 다른 운명과 만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연은 늘 필연을 동반한 운명과 결국 만나기 때문이다.

넷째, 앞의 내용과 별개일 수 있지만, 나는 스스로 궁금할 때가 있다. 이 작업을 왜 하는가 하는 것이다. 작업을 하는 동안 많은 것을 잃은 반면 얻은 것

도 많다. 개인적인 고백 같지만 긴 시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가족의 힘이 다. 나는 아직 철이 들어가는 중이라 여전히 불안전하다. 냉정한 현실 역시 극복해야 할 일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내가 견딜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작업에 늘 함께 참여해 주는 대상, 즉 사람과 현장 덕분이다. 서로 의견이 대립(물적 이미지)될 때도 있지만, 기다려 주고 다시 논의하면서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함께 노력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상처받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상식선에서의 해결 방법을 선택한다. 역사의 커다란 흐름 속에 크고 작은 피해를 당한 분들은 일반 사람들과 달리 모든 일에 대해 신중한 편이다. 결코 말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거나 치밀한 사전 계획 없이 함부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해방 후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돌아갈 여비가 없어 부득이하게 일본 땅 곳곳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들 역시 조국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물론 내가 만난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고,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그들 역시 대한민국이 함께 품어야 할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해방 후 지난 78년 동안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슴에 품고 이국땅 곳곳에서 차가운 냉대와 차별을 견디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를 지난 이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한민국의 힘이 필요할 때이다.

사진에는 사실은 기록되지만, 진실은 기록되지 않는다

효율적인 사진 작업을 위해 늘 현장 작업에 앞서 사전 자료 및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찾아 학습

하고 준비하는 것은 나의 오래된 습관이다. 왜냐하면 ‘사진에는 사실은 기록되지만, 진실은 기록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진 바깥에 대한 또 다른 의미와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고 인식시킬 것인가’가 오랜 기간 동안 나의 화두였다.

촬영 전 기획 단계에서 최종적인 의미 전달까지의 과정은 쉬운듯하면서 어려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 사진 이미지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 전달에 늘 한계와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존재를 증명하는 신분증과 같은 사진들은 사실을 기록하는 데에 크게 기여를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진은 그렇지 못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후쿠오카현 이즈카시에 있는 폐광석 보타이시(硬石)가 쌓여 만들어진 인공 산 보타야마(2008년 7월 촬영)



폐광석 보타이시가 쌓여 만들어진 거대한 언덕. 시바 다케오 씨 제공.

이 사진은 일제강점기 지하탄광에서 채굴한 석탄 중 불량 탄(硬石, 보타이시)이 쌓여 만들어진 인공 산(보타야마)을 찍은 것이다. 아무런 설명이 없으면 평범한 산처럼 보인다.



후쿠오카현 지쿠호시의 보타이시 무연고 묘지(2008년 7월 촬영)
당시에는 조선인이 광산에서 강제 노역이나 사고로 목숨을 잃을지라도 장례식을 치를 수 없었다. 밤늦은 시간 동료들이 화장한 유골을 수습하여 일본인들이 묻힌 묘지 근처에 몰래 묻고 가지고 간 폐광석(보타이시)으로 조선인의 묘지를 표시했다. 조선인의 묘비라는 것이 알려지면 가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묘비는 세우지 못했다.

후쿠오카현 지쿠호시의 무연고 묘지나 야마구치현 우베시 우베탄광의 구조물 사진도 마찬가지이다. 존재의 증명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진실이 담겨있다. 이처럼 사진에는 사실은 기록되지만, 진실은 기록되지 않는다.

역사는 길 위에 있다

『역사는 길 위에 있다』라는 책은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을 주 독자층으로 설정하였고, 한국 근현대사 중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과 관련된 내용 및 현장 사진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출간했다. 역사 현장을 답사하며 작업한 중간 결과물이다. 한국 근현대사와 관련해 기본적인 역사와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과거 촬영된 사진의 현장을 찾아 변모된 상황을 현재 사진과 비교하며 설명하는 방향으로 기획했다. 일제강점기 관련 지역의 시각 지도를 만들고 이에 따른 여러 상황을 글과 사진과 함께 덧붙인다면, 시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많은 것에 대비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처음 관련 글에 대해 의뢰를 받았을 때 가장 고민



야마구치현 우베시 우베탄광 피어(숨구멍) 굴뚝형 탄광 구조물(2008년 2월 촬영)
이곳으로 물이 넘어와 당시 해저탄광에서 일하던 노동자 183명(이 중 조선인은 136명)이 수몰되었다. 그들은 아직도 바닷물 속에 있다.

이 많았던 부분이 두 가지였다. 하나는 부족한 글을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적을 것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에 따른 자료와 사진을 감동을 넘어 어떻게 시각화해서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모두가 만만치 않았다. 역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것에 늘 부족함을 가지고 있던 나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용기를 내어 보았다. ‘시간 되돌리기 방법’을 통해 새롭게 접근하려고 준비했다. 96년 2월부터 현재까지 작업하고 있는 국내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에 대한 작업과 동시에 강제 연행된 일본의 각 지역에 대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 오히려 마음이 가뻔해졌다. 부담감도 많이 줄어들고 동시에 새로운 일에 대한 목표가 생겨 견딜만했다.

첫 답사의 시작을 일본이 아닌 한국 땅에서 시작하였다. 일본이 왜 당시의 대한제국을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는지에 대한 출발점이 바로 한국 땅, 지금의 경기도 안성(성환)천에서 시작된 청일전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시작은 동학농민혁명이었다. 1894년 부패한

권력과 이권을 가진 양반계급들의 결탁과 횡포에 환멸과 동시에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여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다.

19세기 말 조선은 60년(순조/헌종/철종)간 이어져 온 세도정치가 무너지고 이를 악용한 지방 관리의 횡포로 농촌사회의 민심은 극도로 피폐해진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앞세운 서구열강의 침략이 본격화되고 봉건사회의 낡은 틀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전환기였다. 이처럼 민심이 뭉뚱하고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 상황과 맞닥뜨려져 동학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가게 된다. 전주 지역에서 시작된 동학은 조선 왕조의 정신적 뿌리인 전주성을 함락하며 절정에 이른다. 이에 불안감과 공포를 느낀 조정의 관료들과 임금(고종 26년)은 긴급히 청에 구원요청을 한다. 하지만 이전 갑신정변(김옥균, 서재필 등이 주축이 된 개화운동) 이후 체결된 텐진조약(1885년)으로 인해 일본에도 동학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게 된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 없는 일본은 인천항을 통해 군대를 급파, 경복궁에 무단 침입하여 왕권을 무력화시키고, 청이 주둔해 있던 지금의 경기도 인

근 안성(성환)천 일대에 주둔하여 청과 대치하게 된다. 조선의 국권을 장악하기 원했던 두 국가가 조선에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청일전쟁이다.

남의 땅 조선에서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 일으킨 전례 없는 전쟁에서 결국 일본이 승리했다. 이로써 내면에 숨겨진 제국주의 야욕을 드러낸 일본은 조선은 물론 동아시아 지역에서 씻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나는 청일전쟁이 일어났던 안성(성환)천을 시작으로 후쿠오카 규슈 지역의 시모노세키항 주변 지역과 더불어 지쿠호, 이즈카, 기타큐슈 등 조선인 강제동원과 관련된 각 지역에 대한 현장 사진 및 관련 자료와 재일조선인 1, 2세대를 중심으로 구술 채록한 내용도 함께 사용하였다.

이후 히로시마, 나가사키, 오사카, 오키나와 등 각기 다른 지역에 대한 작업을 시리즈별로 엮어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살아있는 역사 지킴이로서의 활용과 함께 실제 현장을 찾아갈 수 있는 지침서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역사는 책 속에도 있지만 길 위에도 있다.



경기도 안성(성환)천(2020년 10월 촬영) ©이재갑
동학군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청군과 일본군이 인천과 아산에 상륙하고 교전(1894년 7월)을 벌인 곳이다. 이른 아침 대구를 출발해 도착한 이곳에서 126년 전 그날을 기억했다.



후쿠오카현 다가와 시의 아소시멘트(2008년 7월 촬영) ©이재갑
아소탄광에서 회사명을 아소시멘트로 변경해 100년 이상 자신들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



동작고등학교 역사관 방문기

서울에서 부산으로 수학여행을 온 동작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5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역사관을 관람했다.

타지역에서 한 학년 학생 전체가 수학여행으로 역사관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많은 인원에도 정숙하고 질서정연하게 전시를 관람하던 학생들의 모습과 전시를 관람하며 질문하던 학생들의 열띤 학구열이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 학생들을 대표하여 인터뷰에 응해준 임유민, 정서운, 김도현 학생의 막힘없는 답변은 감동 그 자체였다.

역사관 직원들을 유쾌하게 독려해 주신 동작고등학교 교감 선생님과 선생님들, 역사관에 큰 관심을 보여준 학생들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5월 24일

신정초등학교

—
역사관을 방문한

—
매호중학교

6월 2일



6월 2일

대구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의 역사관 방문 소감

2학년 1반 강민채

일제가 조선인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가혹한 노동을 시켰다고 하는데 노동을 시키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너무 분노가 느껴졌다. 물론 임금을 주기는 하였지만 밥값, 향해비 등을 내세우며 빚을 갚으라고 하여 남은 임금이 없었다고 했다. 또한 10%는 무조건 강제로 군사 저금을 시켰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나중에는 결국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강제노동을 시킨 것도 화가 나지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도 보장하지 않았던 그 시절의 일제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고 화가 났다.

2학년 2반 김재경

사할린 지역으로 많은 조선인이 강제동원되었다는 것과 해방 이후에도 소련과의 관계로 인해 긴 시간이 지나고, 1990년 이후에야 조국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새롭게 배웠다. 또한 포로 감시관이 된 조선인들이 전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처벌받기도 했다는 사실과 일제의 전범 기업 200개 이상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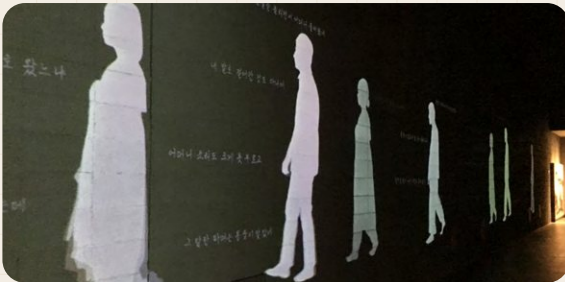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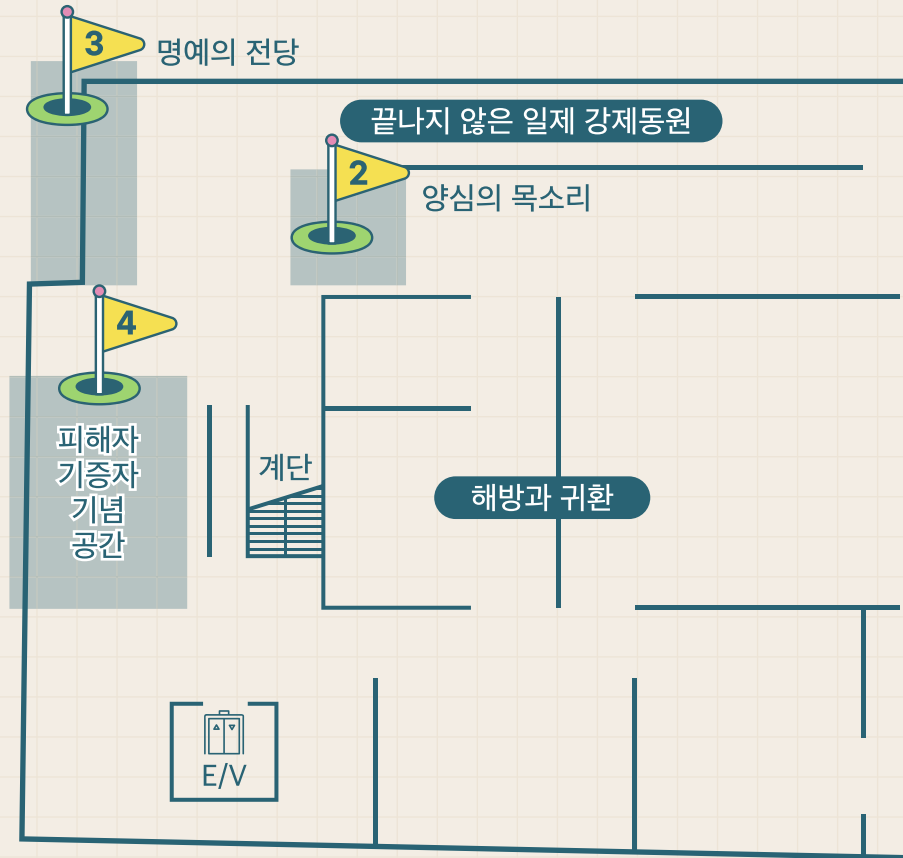
2학년 1반 서유진

사실 나는 역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경험으로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누군가는 역사를 기억해야 무언가 바뀐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창 시절 한국사를 배운 만큼 일제강점기 당시에 강제동원이 있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또 그렇게 뽕뽕이 흩어지게 되었는지는 처음 알았다. 누군가 기록해 두지 않았더라면 역사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을 사람들이었다. 역사를 기록하고, 그것을 전달하고 해설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현재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 이번 역사관 관람으로 역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대구 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의 PICK

4층



2학년 5반 김민주

그 당시 사람들이 겪은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이었던 상황을 직접 생생하게 듣는 것 같았다. 때문에 역사관 전체를 둘러보며 일제강제동원의 실체와 가혹했던 현실을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자 했던 것 같다.

1



2학년 3반 김주은

‘일본, 양심의 목소리’ 코너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방명록이 인상적이었다. 이 전시물을 통해 잘못된 과거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정치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의미 깊었고 인상 깊었다.

2



2학년 1반 서유진

3

‘명예의 전당’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품을 기증했다는 것은 이미 일제강점기가 막을 내린 상태에서도 많은 이들이 아픔을 안고 살았다는 의미가 아닐까? 나는 역사관의 어떤 전시물보다도 수십 명의 이름들이 일제강점기의 폐해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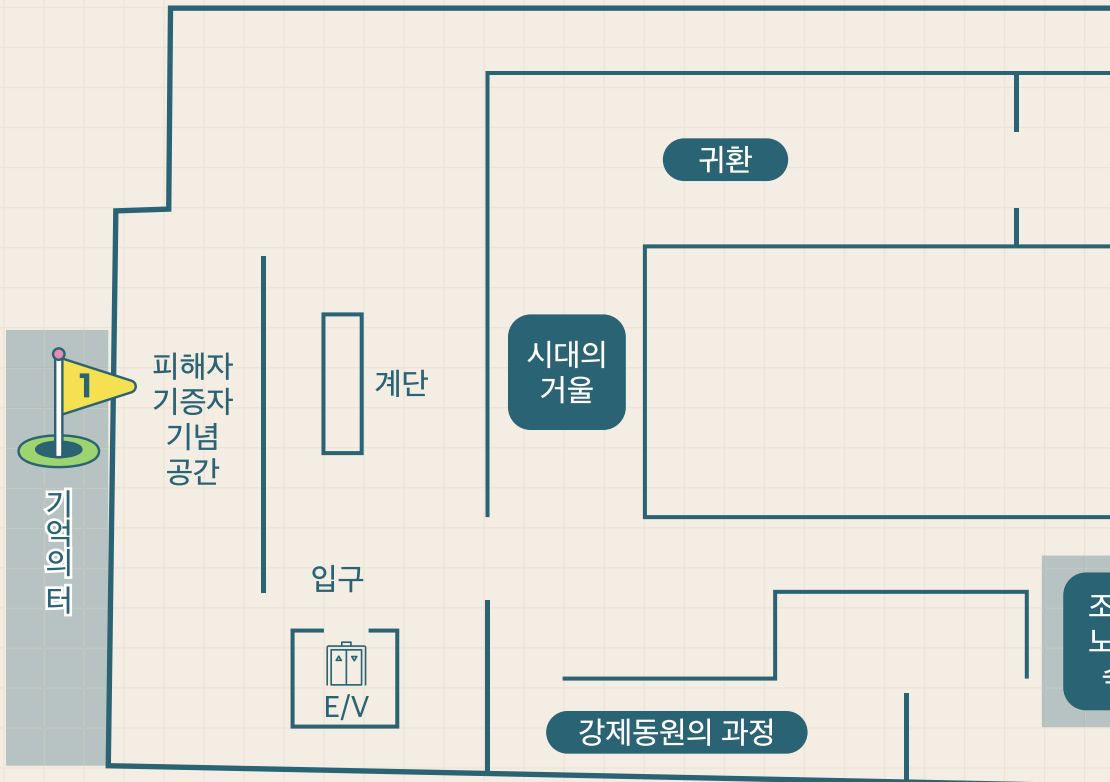


2학년 1반 강민채

4

‘피해자 기념 공간’이 가장 인상 깊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이 사진에 있는 사람 말고 무수히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고, 그 때의 현실 상황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 많았기 때문이다.

5층



2학년 3반 배수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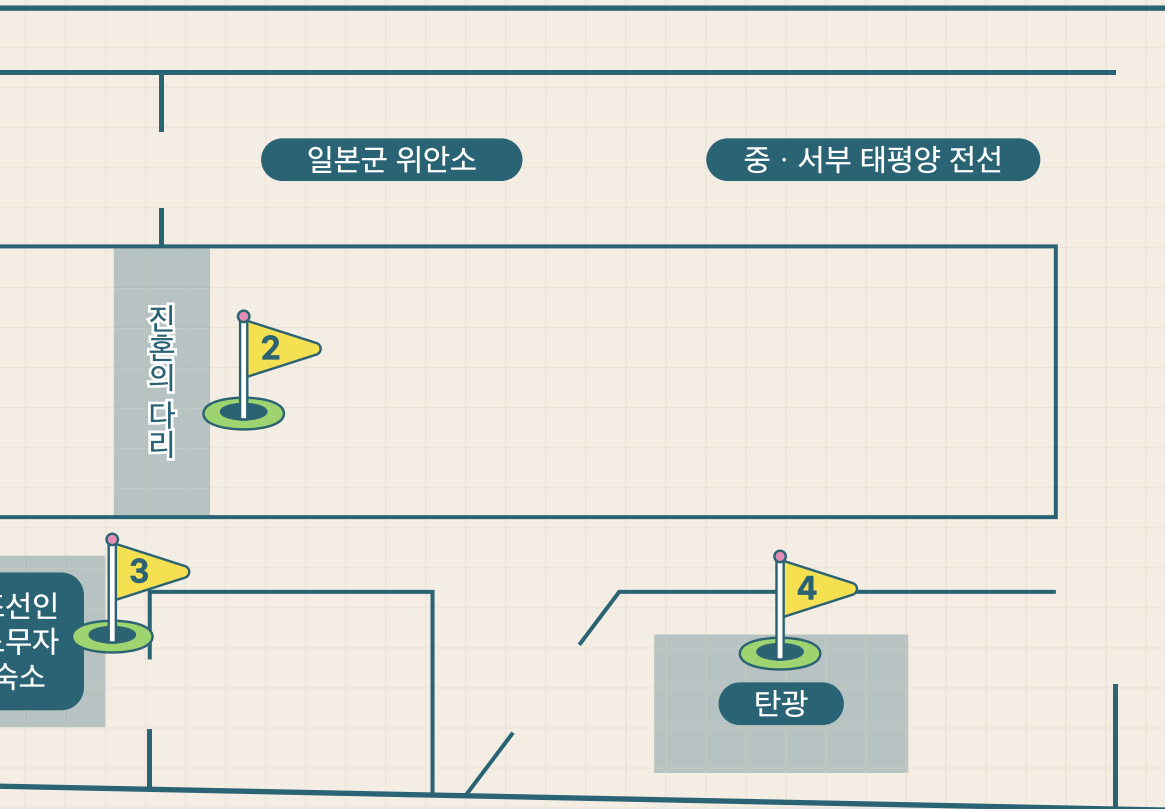
‘기억의 터’가 가장 인상 깊었다. 누군가의 남편이자 누군가의 아들이자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수많은 분들이 강제동원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겨우 두, 세 글자 되는 이름이 방 하나를 꽉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많다는 것이 충격적이었다.



2학년 1반 박기현

2

5층에 있는 ‘진혼의 다리’가 인상적이었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그냥 전시회의 멋을 돋우기 위한 조형물인 줄 알았지만 가까이서 보니 조명 하나하나에 강제동원 당하신 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누가 희생이 되었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가까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어떤 분들이 희생당하셨고 어떻게 인권이 박탈되었는지 그 역사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여 더욱 인상 깊었다.



2학년 2반 김재경

‘조선인 노무자 숙소(다코베야)’ 재현 공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모형으로도 조선인 노무자 숙소를 재현해두었지만 실제와 같은 재현 공간은 고된 노동 뒤에 노무자들이 또다시 견뎌야 했던 환경의 열악함을 느낄 수 있게 했다.

3



2학년 1반 구예람

‘탄광’ 전시물이 인상적이었다. 어릴 적부터 말로만 듣고 배웠던 일제의 강제징용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보니 이제서야 그분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느낄 수 있게 되었다.

4

청년 도슨트 운영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 바로 전시해설을 해주시는 도슨트 선생님들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거의 3년 동안이나 도슨트 해설이 중단되어 역사관을 찾는 분들에게도, 관람객들과 소통하는 것이 즐거움이었던 도슨트 선생님들에게도 안타까운 시간이 이어졌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역사관 도슨트 해설 투어를 시작한다. 올해 초부터 모집과 교육, 테스트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역사관 도슨트가 된 청년 도슨트들이 5월부터 전시해설을 시작했다. 안정적인 도슨트 운영을 위하여 우선 오전 10시, 오후 14시 30분, 하루 두 차례 상설전시해설만 진행한다. 매회 선착순 20명 제한이 있으니, 역사관을 방문한다면 역사관 4층 도슨트 데스크에 가서 전시해설 접수를 먼저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역사관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신규 도슨트 선생님들의 새로운 시작에 많은 격려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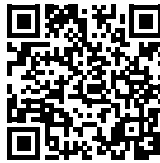
(문의 051-629-8600)



도슨트 노건후, 김선아

도슨트 인스타그램이 개설되었습니다

청년 도슨트 선생님들의 센스와 뽀짝함이 담긴 인스타그램에서는
역사관 도슨트의 활동 모습과 해설 일정표 등 다양한 정보를 만나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청년 도슨트 소감 및 포부

도슨트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권주련

안녕하세요! 2023년 역사관 도슨트로 임명된 권주련입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하였지만 다른 직무에 재직 중이어서 항상 역사학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고, 도슨트 프로그램을 만나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해 주시고 지역 사회에 봉사하면서 역사관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것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지

한 달여간의 수습 활동을 거쳐 역사관의 도슨트가 되니 설레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무엇보다 전시해설을 통해 역사관에 방문하는 많은 분께 강제동원의 역사에 대해 알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대됩니다.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전시해설 경험도 부족하지만, 역사관에 대해 그리고 강제동원의 역사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여 역사관과 방문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도슨트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김선아

안녕하세요. 5월부터 정식으로 도슨트 활동을 하게 된 김선아입니다. 대학 수업 이외의 남은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 신청했던 자원봉사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아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국립

일제강제동원역사관 도슨트를 신청한 것은 대학교에 들어오고 저 스스로 처음 자발적으로 도전해 본 일이지에 더욱이 뜻깊은 것 같습니다. 교육을 듣거나 면접을 준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경험이 되었기에 정말 좋았는데 이렇게 합격하여 정식 도슨트로 활동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담은 곳이지에 역사관을 찾아 주시는 많은 관람객분들께 더욱 정확하고 좋은 내용으로 해설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정

안녕하십니까.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도슨트로 임명된 고고미술사학과에 재학 중인 김세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학년으로, 이전까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고자 도슨트 활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3년 5월 1일 정식 활동을 시작으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전시해설 및 안내와 서포터즈 활동으로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의 참상을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인권의 날에 개관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가진 인권과 세계 평화에 대한 목적성까지 도슨트로서 관람객에게 최대한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를 단순히 어렵고 지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다양한 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유익한 전시 해설을 통해 관람객과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교감을 할 수 있게 하는 도슨트가

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멈추어 갔던 전시 해설이 앞으로 매달 이뤄지는 상설전시해설과 도슨트 인스타(@fomo_docent) 활동을 통해서 제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과 관람객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것입니다!

노건후

안녕하세요, 2023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제4기 도슨트로 임명된 경성대학교 3학년 노건후입니다. 저는 처음에 여기 이 역사관의 존재를 알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알게 되고 수습 활동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이곳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알게 되고 기억하고, 찾아오실 수 있게 되도록 노력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도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직접 마주할 수 있는 뜻깊은 역사관입니다. 우리 역사관을 통해 뼈아픈 역사를 거울삼고, 한 발짝 더 나아가 미래를 고찰하며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역사를 설명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만큼, 끊임없이 노력하여 역사관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하겠습니다.

손희정

처음으로 도슨트 활동을 하는 것이라 많이 걱정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설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제 강제동원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뜻깊은 역사관에서 일을 할 수 있어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일제 강제동원의 진실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SNS 활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활동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세요!

송한주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하여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고 활동을 시작하며 일제 강제동원 역사에 대하여 스스로 공부를 통해 정보를 찾고 더욱 많은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역사는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점점 잊혀가며, 와닿는 감정 또한 멀어져 갈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아이들한테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왜곡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진실한 역사를 기억하며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비전공자로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제공 드리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전공자의 시선으로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정보를 그림으로써 역사에 대하여 관심이 없거나 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순회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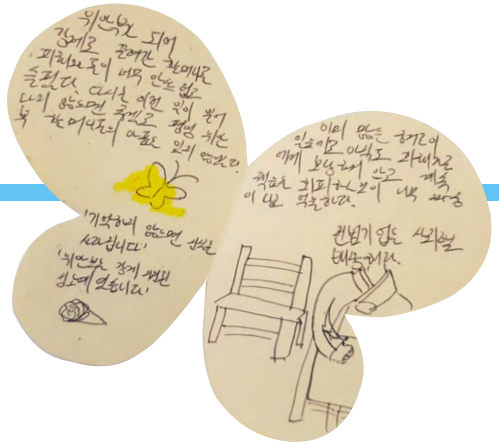
《잊힌 그날의 기억》

2023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침략전쟁에 강제로 동원되었던 우리 할아버지·할머니의 이야기인 《잊힌 그날의 기억》 특별순회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별순회전시는 일반인들에게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널리 알리고자 직접 찾아가는 전시로 기획하였다.

특별순회전시 신청은 3월 17일부터 학교, 박물관, 공공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접수 받았다. 부산 주례여자고등학교를 시작으로 경주여자고등학교, 충렬고등학교, 당리중학교에서 특별순회전시를 개최했으며, 올해 창녕 박진전쟁기념관 등 총 10개 기관에서 특별순회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시는 ‘일제의 팽창과 아시아태평양전쟁’, ‘한반도 수탈과 강제동원’, ‘강제동원 유형’, ‘강제동원 지역’, ‘끝나지 않은 강제동원’ 등을 주제로 한 롤업배너 22개로 구성하였다. 롤업배너에는 강제동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과 관련 유물 사진 등을 포함하고 있어, 마치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전시를 관람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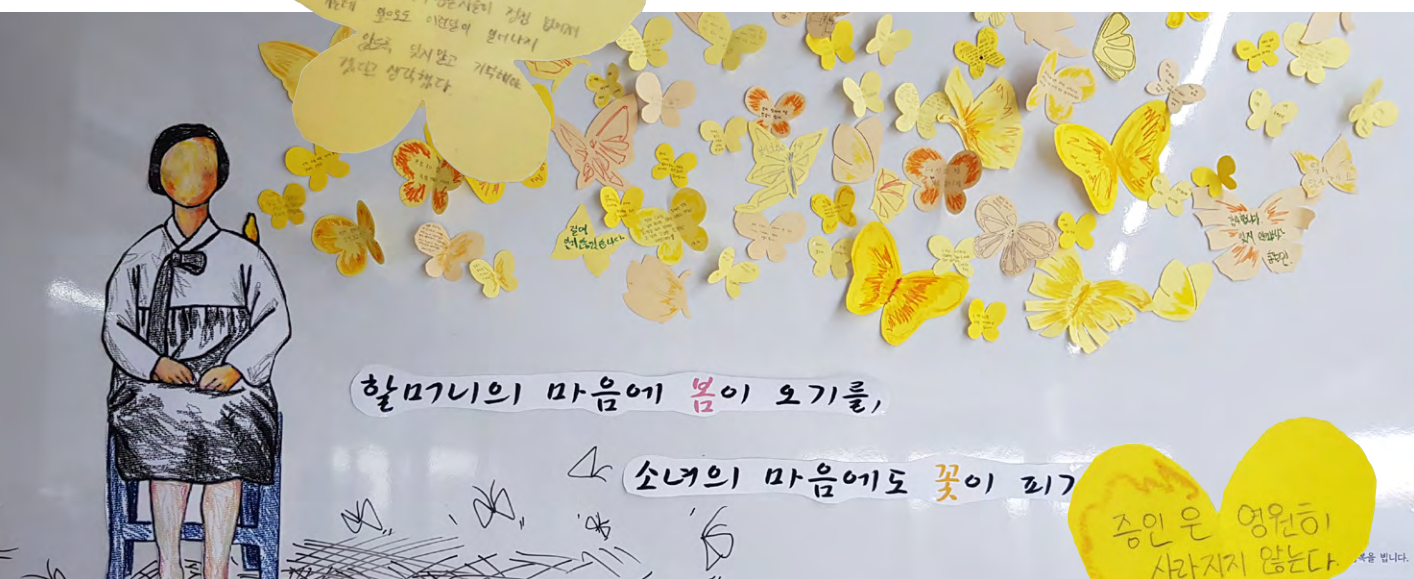
강제동원은 누군가에게는 경험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어렵פות이 들은 적이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할 아픔을 간직한 역사이다. 이번 특별순회전시로 많은 분께 강제동원의 역사를 알리고자 한다. 내년에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시물 제작 등 다양한 연령의 눈높이에 맞춘 전시를 준비할 예정이다.



이런 가슴 아픈 역사는 결코 잊혀서는 안된다.



역사관, 학교로 찾아가다



찾아가는 역사관

역사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학교를 위해 2023년 역사관은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해는 특히나 희망 문의가 많아, 전국 89개 학교 (2,750명)가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작년보다 신청 인원만 6배가 넘는 수치였다.

수많은 희망 지역 중, 산간벽지나 도서지방 등 문화예술 교육의 접근성이 낮고, 역사관으로부터 거리가 먼 학교를 우선순위에 두고 선발했다. 그 결과, 인천 강화군의 선원초등학교, 충남 당진시의 순성중학교와 합덕중학교, 전북 남원시의 남원대산초등학교 총 네 학교를 최종 선정하여 ‘강제동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학교에는 감사와 아쉬움의 마음을 담아 강제동원 역사 웹툰 소책자를 발송하여 학생들이 강제동원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역사관 대면 교육

역사관에서는 3월부터 학교와 단체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면 교육 프로그램은 강의와 교구 체험 형식으로 진행하며, 강제동원과 관련된 교구를 만들어 가져갈 수 있게 구성했다. 역사관에서 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고 전시를 관람해 봄으로써 강제동원의 역사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듯하다.



1 내 책상 위의 소녀상

일본군 '위안부'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탄생 배경과 문제점 등을 배워본다. 그리고 수업 말미에 평화의 소녀상을 모티브로 디자인된 석고 방향제를 만들어 봄으로써 일본군 '위안부'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3 별 헤는 밤

일제 강제동원의 4가지 유형(노무동원, 군인동원, 군무원동원, 성(性)동원)에 대해 배워보는 프로그램이며, 강제동원의 4가지 유형을 모티브로 평화·인권 무드등을 만들어 가져갈 수 있다.

2 태극기 휘날리며

태극기가 처음엔 어떤 모습이었고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태극기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의 상징물인 태극기가 어떻게 탄생하였는지, 독립운동과 함께한 태극기는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보고, 태극기 네임태그를 직접 제작해 보며 태극기의 의미를 배워 본다.

4 출발! 역사관 탐험대

박물관 관련 직업군에 대해 알아보는 진로 프로그램으로, 박물관에 종사하는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역사관 전시실을 탐방해 보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신청은 꿈길(교육부)을 통해 가능하다.

어린이의,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특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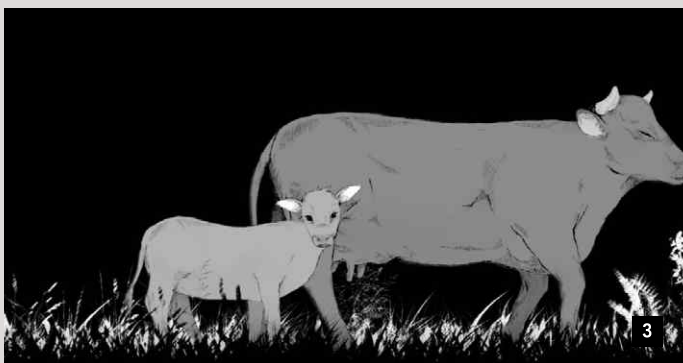
‘또 다른 수탈收奪’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역사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 특별전 ‘또 다른 수탈 收奪’을 진행했다. 전시실 입구인 ‘기억의 터널’에서부터 영영 울어버리는 어린이들에게 강제동원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동물’을 떠올렸다. 비록 기획자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눈으로만 예뻐할 수 있는 겁쟁이지만, 동물이라면 어린이들이 무섭고 어렵지 않게 전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전시는 ‘일제 수탈로 빼앗긴 동물들을 위로해 주고 다시 영혼을 되찾아 주자’라는 스토리로 구성되었다. 일제강점기 때 수탈당한 대표적인 동물들인 8가지 동물, ‘소·돼지·개·토끼·양·고래·멸치·정어리’가 관람객을 맞이하는 것으로 전시를 시작했다. 일제 수탈로 인해 영혼이 빼앗겼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동물들은 모두 종이로 제작하여 연출하였다. 미디어 존에서는 동물들이 어떻게 수탈당했는지 도트 애니메이션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흰 캔버스를 영상 위로 갖다 대면 8가지 동물들의 수탈 과정을 자세하고 선명하게 볼 수

1. 색을 잃어버린 동물들
2. 갤러리존
3. 갤러리존 영상 중 어미 소와 송아지
4. 아이들이 슬퍼했던 돼지 미디어아트 영상



있는 체험으로, 돼지가 소시지로 나와 관람하던 아이들을 슬프게 했던 기억이 난다. 미디어 존을 나오면 볼 수 있는 에필로그존에서는 수탈당한 동물들에 색을 칠해줌으로써 수탈 동물들을 위로해 주고 영혼을 되찾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탈 관련 유물을 전시하고 자석 놀이 공간을 마련하여 전시 이해도를 높였다. 복도의 갤러리존에서는 수탈된 동물들과 관련된 사진과 쇼트 애니메이션을 전시하여 관람객이 당시의 아픔을 느낄 수 있도록 연출했다.

강제동원은 인적, 물적, 자금 등 한반도에 있는 일체가 그 대상이었다. 강제동원은 조선인에게 직접 행해지기도 했지만 동물 수탈과 같은 물적 수탈이 이루어지면서 물가가 급등하는 등 조선인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전쟁을 위해 우리 곁의 동물들도 희생당했다는 것, 공황 이후 힘들었던 조선인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것, 과연 이 전쟁은 필요한 것이었는지,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길 기대한다. 또한 강제동원의 아픔이 미래세대와 조금이나마 공유되었길 희망한다.

기억을

기록하다



피해자 박기열朴奇烈의 사진

2023년 기증 유물 소개

피해자 박기열^{朴奇烈}의 사진

역사관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피해 진상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와 역사관 개관 이후 수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위원회 이관 자료는 대부분 피해자 및 유족에게 기증받은 것이며, 강제동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되어, 강제동원 진상규명과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역사관은 개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나 유족에게 기증을 받아 전시·교육·연구 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다.

유족분들이 역사관 내 ‘기억의 터’(위패관)를 방문했다가, 소장 중인 피해자의 사진이나 유품의 기증 의사를 밝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번 기증 유물도 그러한 사례이다. 기증자 박수경은 조모로부터 받은 큰아버지의 사진을 보관해 오다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역사 보존 등을 위해 역사관에 기증하였다.

피해자 박기열(1920.6.7.~1943.1.22.)은 일제에 의해 제15설영대 소속 군무원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뉴기니에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해자로 인정되었다. 사진 촬영 당시 연령은 22세이고, 일본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증자에 따르면, 조모는 젊은 나이에 사망한 피해자를 그리면서 계속 가슴앓이를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피해자의 사진은 일제가 남긴 강제동원의 비극과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기증은 인연이다

반가운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편지를 보낸 이는 2017년 우리 역사관에 석탄을 기증한 우라베 데쓰오 씨. 당시 우리 역사관은 문을 연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우라베 데쓰오 씨의 기증 연락이 몹시 반가웠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어떻게 알고 연락했는지 궁금했다. 기증 자료는 후쿠오카 현 이즈카 시 스미토모 타다쿠마 광업소의 석탄으로, 직원이 광업소가 문 닫는 것을 기념해 가지고 있다가 2017년 우라베 데쓰오 씨를 통해 역사관에 전달되었다. 우라베 데쓰오 씨가 보낸 이번 편지에는 2017년 자료 기증 당시를 회고하며 그간 우리가 보내준 자료들에 감사를 표했다. 우리 역사관과 우라베 데쓰오 씨의 인연을 소개하며 편지 전문을 공개한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관장 · 담당 직원분께

로전에, 역사관의 전시자료 도록과 안내 표시(명예의 전당) 사진, 그리고 역사관 소식지 『FoMo』 29호를 이사한 곳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사했을 당시, 역사관에 이사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폐를 끼쳤습니다. 미안합니다!

부산외국어대학 명예교수의 김문길 선생의 협력과 역사관 직원분들의 후의로 멋진 도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배낭에 무거운 석탄을 가득 채워 페리에 올라타 운반했던 일을 떠올리며 도록을 보았습니다. 안내(역사관)에 전시하여 견학자에게(관람객에게) 한일 역사의 진실을 전달해 주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현재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골을 조사하여 태어난 고향의 유족 곁으로 반환하는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꼭 역사관에 들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023년 4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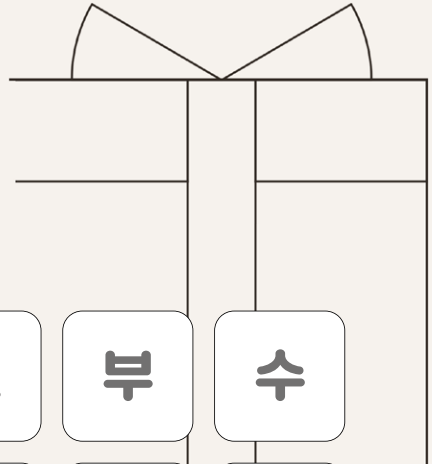
<강제연행을 생각하는 모임>

대표 우라베 데쓰오

우라베 데쓰오 씨가 역사관에 보낸 편지 전문 번역문

동자참여 낱말 퀴즈

아래 낱말 퀴즈의 정답을 맞춰주세요~



| | | | | | |
|---|---|---|---|---|---|
| 정 | 주 | 포 | 조 | 부 | 수 |
| 체 | 모 | 찬 | 세 | 해 | 공 |
| 기 | 적 | 조 | 이 | 방 | 이 |
| 호 | 억 | 자 | 탄 | 극 | 학 |
| 사 | 여 | 의 | 광 | 태 | 포 |
| 상 | 영 | 맛 | 터 | 터 | 우 |

1. 일본 야마구치(山口)현 우베(宇部)시 니시키와(西岐波)에 위치한 해저탄광은?
2.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의 영면을 위한 추모공간으로, 일제강제동원역사관 5층에 자리한 곳의 이름은?
3.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의 모습으로, 강제동원의 역사적인 사실과 세계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명을 가진 재단의 캐릭터 이름은?

정답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사업

- | | |
|-----------------------|---|
| 6.12.(월) ~ 7.2.(일) | 도슨트 모집 서류접수 - 접수방법 : 담당자 메일(subingoh@fomo.or.kr) 접수 - 발표일 : 7월 7일(금) |
| 7.8.(토) ~ 9.9.(토) | 역사관 아카데미 - 접수방법 : 역사관 홈페이지 사전접수(진행 중) |
| 8.15.(화) ~ 8.16.(수) | 광복절 맞이 문화행사 - 접수방법 : 역사관 홈페이지 사전접수(8월 초 예정) |
| 9.22.(금) | 2023년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전국합동위령제 개최 올해 처음으로 부산·서울 분산 개최 - 부산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7층 추모공원 - 서울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시간 : 14:00 ~ 15:00 |
| 9.26.(화) ~ 12.10.(일) | 기획전시 개최 '일상日像의 풍속' - 장소 : 역사관 4층 중앙홀 |
| 10.21.(토) ~ 11.11.(토) | 하반기 인문학특강 개최 - 접수방법 : 역사관 홈페이지 사전접수(9월 예정) |
| 11월 중 | 어린이체험관 리모델링 진행 |

* 상기 사업은 진행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날말 퀴즈 정답

1. 조세이탄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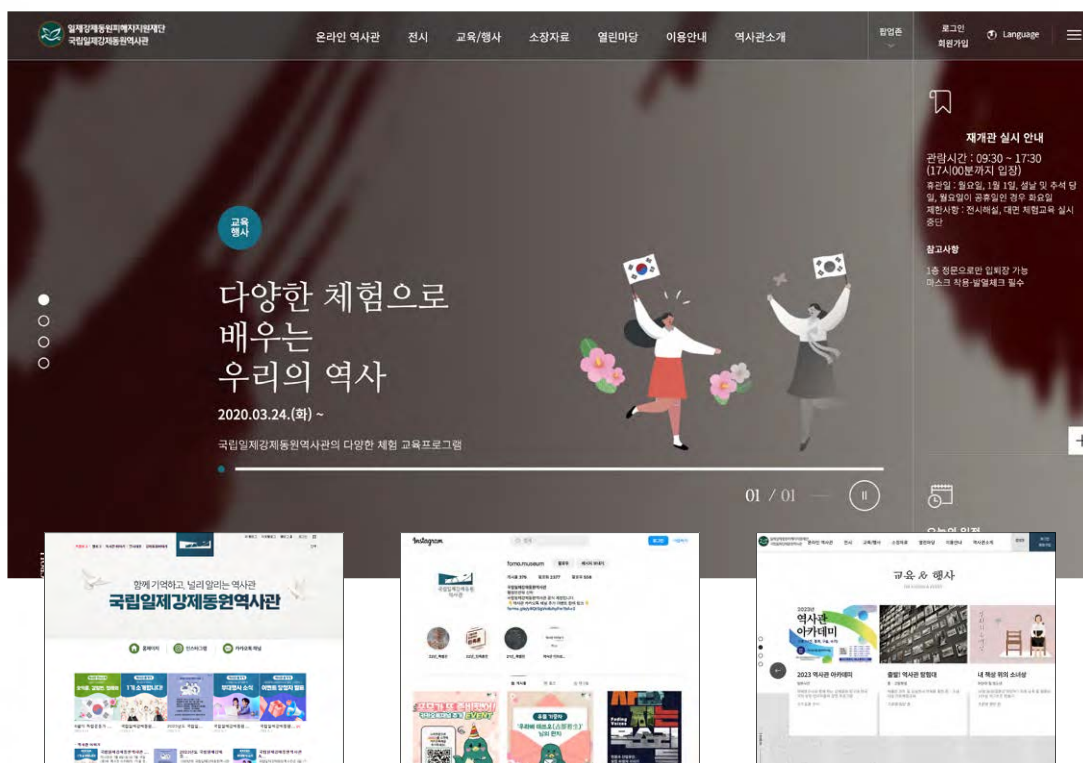
2. 기억의 터

3. 포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언제 어디서나 역사관을 만나보세요



blog



블로그 QR



인스타그램 QR



홈페이지 QR

여러분의 기억이 역사관의 기록이 됩니다.

기억을 너머 기록으로

땅에 묻지 마세요, 태우지 마세요.

눈물 젖은 여러분의 물건이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
- 수집대상 : 일제 강제동원 피해 관련,
아시아태평양전쟁 관련 사진·문서·의류·도서 등
 - 문의처 : 051-629-8615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48532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0 (대연동 산 204-1)

Tel 051 629 8600 Fax 051 629 8619 Homepage <http://www.fomo.or.kr/museum>